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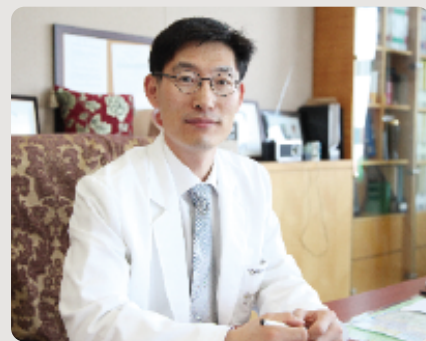
01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 갱년기장애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선정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지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연구책임자로 선정됐다.

개발 대상 30개 세부 질환 중 갱년기장애의 진료지침 개발 연구책임자로 연구기간 동안 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275억 원을 투입해 3년간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2021년부터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보급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상연구는 침, 뜸, 부항, 추나 등과 한약제제, 탕약, 약침 등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 활용을 통해 수행될 계획이다. 또한,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분당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불안장애, 경주한방병원 내과 중풍 등 동국대학교의료원은 30개 질환 중 3개 질환이 선정되어 우수한 연구역량을 과시하였다.



02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고양시 소재 7개 한의원과 진료협약체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8월 8일 고양시 소재 7개 한의원 고양, 성동, 보인, 장수, 예창, 우보, 광진 한의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지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홍승욱 한방진료부장을 비롯한 진료과장 7명 외 신규 협력한의원 원장 7명, 기존 협력한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신뢰 형성 및 균형적인 의료 발전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지천 한방병원장은 “협력한의원 체결식 및 간담회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로 앞으로 고양, 파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포, 강화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더 많은 협력한의원과 서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03 2016년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시행

간호부는 8월 10일 본원 1층 로비에서 제25회 세계모유수유주간을 맞아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모유수유 권장 및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양·한방병원이 함께 참여하여 한방 산후보양패키지를 소개하였으며 본원 모자동실 안내와 활동소개, 모유수유 교육 및 자료 전시, 관련용품 홍보물 전시 등 예비산모와 산모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영양팀에서는 성공적인 모유수유와 부족해지기 쉬운 산모 영양관리를 위해 산모식단을 시연하여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산모들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고 실천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